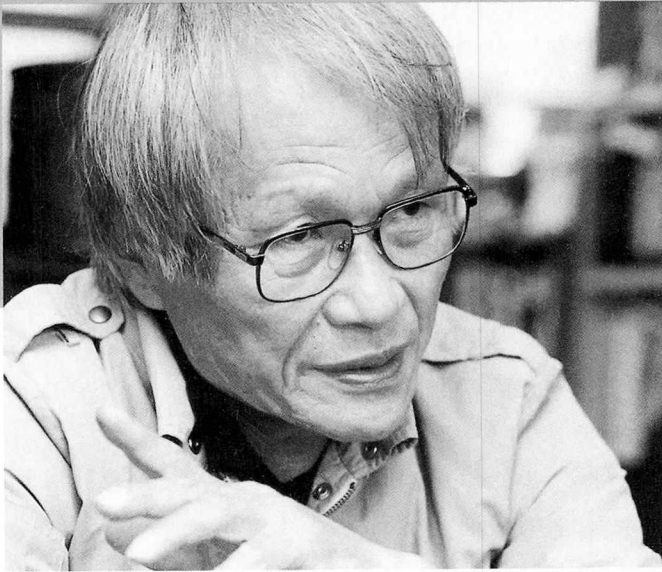


“우리는 죽음으로 귀성해야 한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펴낸 김열규 교수



김열규 교수(70, 인제대 국문과)가 평생의 죽음론을 한권의 책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로 펴냈다. ‘메멘토 모리’ (memento mori)는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의미의 라틴어. 애초 어린 외국어 발음과 ‘기억하라’는 다짐이 부딪히니 가벼운 울림 같은 것이 생겨난다. 그리고 그 과문은 점점 커져 제목부터 한참을 헤매게 한다. 흥미를 느끼게 하거나 책의 성격을 짐작케 하거나 무슨 태도를 취하게 하기보다는 제목을 따라 읽은 발음 자체에 오래 머물게 한다. 죽음을 기억하라니! 우리가 죽음과 무슨 기억할 만한 인연이 있다고.

편안하고 안전한 죽음의 이미지

이 책은 차분하고 조용하게 죽음을 이야기한다. 죽음의 역사, 죽음의 철학, 죽음의 문학을 이야기하고 죽음을 인식하고 대처하는 것에 어떤 정서들이 녹아 들어가 있는지 들려준다. 그리고 유럽 같은 타방의 죽음론에 익숙한 우리에게 이웃과 친족의 죽음이 무엇인지 말해준다. 그렇게 동질적이면서 이질적인 죽음의 문화적 차이를 통해 죽음의 문화론을 편다. 한국인의 죽음에 대한 보기 드문 인문학적 통찰이란 점도 이 책의 추천사에 값할 만하다. 동어(同語)와 동조(同調)로 끊어질 듯 이어지는 문장들은 그 자체로 죽음에 대한 아포리즘을 낳고 있다.

경남 고성군 하일면 송촌리. 구불구불한 국도를 달리는데 오후가 돼 따뜻해지고 잠잠해진 남해 물빛이 먼 듯 가까운 듯 따라온다. 커브를 틀자 명울처럼 겨울 벌판에 맺힌 마을이 있다. 마을 초입에 멀리서도 눈에 띄는 잘 지은 양옥이 보이는데 김교수가 생의 마지막 동지를 튼 곳이다. 그는 마당 뒤편에 심어 놓은 나무 열매를 한창 따고 있었다며 목장갑을 낀 채 우릴 맞이준다.

이 책은 차분하고 조용하게 죽음을 이야기한다. 죽음의 역사, 죽음의 철학, 죽음의 문학을 이야기하고 죽음을 인식하고 대처하는 것에 어떤 정서들이 녹아 들어가 있는지 들려준다. 그리고 유럽 같은 타방의 죽음론에 익숙한 우리에게 이웃과 친족의 죽음이 무엇인지 말해준다. 그렇게 동질적이면서 이질적인 죽음의 문화적 차이를 통해 죽음의 문화론을 편다.

“이곳 좋지 않나요? 자란항 물빛 참 곱죠? 내가 민속학자라 전국 다닌 곳이 없지만 내 고향 고성만큼 따뜻하고 잘 자란 땅이 없어요.”

워낙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차린 죽음의 잔칫상을 받은 뒤라, 죽음 앞에 불려온 것처럼 잔뜩 주눅 든 기자 앞에서 머리가 허영게 센 노교수는 대뜸 고향 자랑을 늘어놓는다. 알파카를 양끝으로 쳐지며 다물어지는 입술이 일견 학자의 완고함을 연상시켰지만, 그 뒤로 따라 붙는 안온하고 평화로운 기운이 더 깊고 진했다. 그것은 이 책의 제목 때문인지는 몰라도 마치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만이 보일 수 있는 표정과 말투처럼 여겨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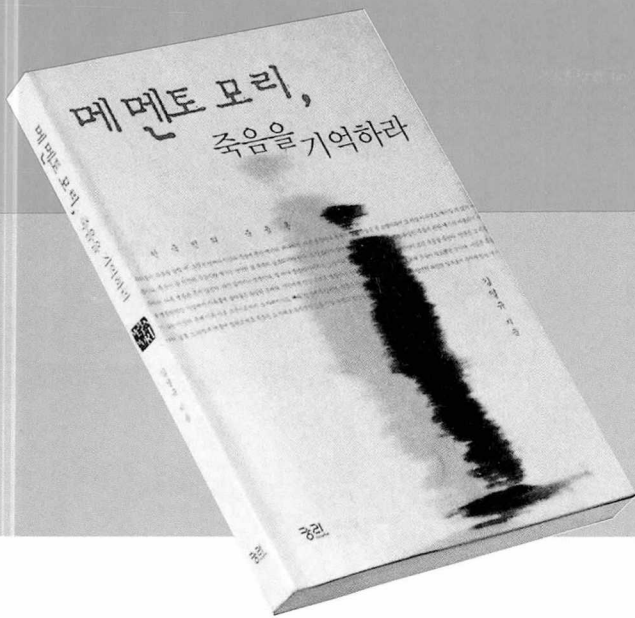
“해거름이면 가끔 저기 보이는 방죽으로 차를 몰고 나갑니다. 햇볕이 잘 들게 차를 세우고 의자를 젖히고 가만히 누워보곤 하죠. 주변 공기가 저녁의 기운에 취한 듯 불그스레해져 오면 꼭 내가 들어갈 판에 누운 것처럼 편안한 느낌이 들곤 합니다.”

죽음은 삶보다 더 풍부하다

죽음이 설마 이렇게 안전한 것일까? 김교수는 옛날 어른들은 자신이 죽기 전에 미리 관을 짜 놓고 한번씩 들어가서 누워보는 일을 여가로 삼았다고 말한다. 요즘은 이렇듯 죽음을 삶 속에 들이는 풍경을 보기가 힘들어졌지만 김교수에게 죽음은 삶의 맥박 속에 살아 숨쉬며 오히려 삶보다 더욱 풍부한 표정을 간직하고 있다. 그가 죽음에 대해 유려한 에세이를 쓰게 된 데엔 남다른 사연이 있다.

“어머니가 유별난 분이셨어요. 예전에는 언문제문(諺文祭文)이라 해서 한문을 모르는 여자들이 친정 부모의 상청(喪廳)에서 한글로 지어서 읽곤 했거든요. 당시 고성의 여자 문필가로 일컫기도 했던 어머니는 남을 위해 대필한 것까지 작은 께짝 하나 가득 언문제문을 간직하고 계셨습니다. 슬픔, 고통, 무엇보다 회한을 풀어나가던 어머니의 제문은 참 청승맞았죠. 하지만 그 죽음의 글은 결국 죽음을 달래는 웅얼거림으로 낮아지곤 했습니다.”

조모가 돌아가시기 전 편찮을 때 기억도 그의 뇌리에 남아 있다. 불



공리/A5신/308면/10,000원

교신자였던 할머니는 “나를 잡지 마라. 밤마다 부처님이 연꽃밭으로 나를 부르는데, 왜 자꾸 못 가게 하느냐”는 말을 남기고 저 세상으로 떠났다. 김교수는 이를 두고 “나중엔 그게 진정한 불심(佛心)이었음을 느꼈다”고 말하지만, 이것은 참된 신앙을 넘어서 그가 책 속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삶 속에서의 죽음의 완성’이라는 명제와 깊은 관련이 있다. 즉, 죽음은 육신과 영혼의 있고 없음이라는 이분법적 논리나 실존의 종말이라는 극단적 허무주의로 운위될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삶이 곧 죽어가는 과정이고, 어떻게 죽음에 대해 사유하고 그 사유한 바를 실천하느냐에 따라 삶의 표정이 달라진다는 삶과 죽음의 일체론이다.

“죽음이 배제된 삶은 반쪽짜리에 불과합니다. 두려워 전율하면서도 우리는 죽음으로 귀성(歸省)해야 합니다. 두려움과 몹서리, 비통과 탄식, 좌절감과 절망, 상실감과 허무, 그러면서도 엄숙한 장중함. 이것들을 우리는 죽음과 함께 경험합니다. 물론 거기서 눈 돌리지 않고 제대로 들여다보는 일은 어둡고 습지고 침울한 일이지요. 하지만 어쩔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인데.”

죽음에 대한 경시는 삶의 가벼움과 연결돼

김교수는 보드리야르를 인용하면서 지금은 죽음이 불법처럼 돼버렸다고 전한다. 오죽하면 “죽음에 비하면 다른 것은 모두 무해할 정도”라는 말까지 나온다. 이 시대 죽음은 삶에서 철저히 추방됐다. 옛날 사람들이 부고장에 묻어 올 액운을 두려워하던 것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죽음은 설 곳을 잃었다. 오직 죽지 않고 영생하는 게 ‘장땡’이다. 그런가 하면 사돈팔촌이 모이고 곳을 벌이고 그 과정에서 전문적으로 곡을 하는 아낙네들이 밤벌이를 해결하던, 인간의 결집과 경제활동에까지 미쳤던 장례문화의 넓은 문화적 외연도 급격하게 축소됐다.

“한편은 아파트에 있는 상가를 물어 물어 찾아가는데, 아파트 15층에서 크레인에 매달려 뭔가가 기우뚱거리면서 내려오는 것을 봤습니다.

처음엔 이삿집인가 했는데 관이더군요. 그때의 충격은 잊을 수 없습니다. 인간 역사를 통틀어 가장 보수적이었고 또 완고해야 마땅할 장례풍습(제의)이 한낱 편의의 대상으로 추락한 현장을 목격한 것이죠. 그 꼴을 보고 나서 그 집에는 도저히 못 들어간다 했습니다.”

이 책에는 죽음을 경시하는 현대인들의 태도를 질책하는 대목이 많다. 죽음이 삶과 한쌍인 이상 그것을 가벼이 여기는 것은 삶을 가벼이 여기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김교수는 그래서 본문에, 우리 조상들이 죽음을 부정적으로 여겼든 혹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든 죽음 앞에서 얼마나 경건하게 몸가짐을 가다듬었는지 수많은 사례들을 소개했다. 부모 상중에 외출할 일이 있으면, 반드시 못 생긴 말에 무명 안장을 얹어서 타거나 회개 꾸민 교가에 발을 늘이고 타게 한 상례 절차들, 원령신앙을 통해 되새겼던 죽음의 공포국면들, 무덤의 방향, 와석종신의 호상과 타향별세의 악상에 대한 철저한 구분 등이 그 예다.

“우리의 경우 죽음을 향한 관심의 통로가 너무 완벽하게 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죽음이 죽어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이제 말하고 싶습니다. ‘죽음아 이제 삶 대신 네가 말하라’. 공동묘지를 없애자는 지역 이기주의에는 ‘산 자여 너네들이 당장 나가라’. 그리고 삶을 다그치듯 죽음을 잊지말자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고성·강성민기자

한국인의 죽음의 문화사

삶에 철들고 죽음 이후를 사유하게 되면서 인간은 보잘 것 없어지고 무상해진다. 약속의 땅을 굳게 믿는 신앙인이 아닌 바에야 죽음은 그걸로 세상의 끝이고 존재의 암전이다. 이 무형의 압력에 대한 조상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이 책에서 김교수는 죽음과 더불어 살아온 조상들의 흔적을 끈질기게 추적한다. 민간전승으로 볼 때 죽음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미화’(美化)다. 《삼국유사》에 최치원의 죽음을 두고 “길이 산으로 사라졌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죽어서 신선이 됐다는 뜻이다. 하지만 그것은 전설일 뿐이고 보편적으로는 죽음을 억압했다. 부고장은 대문 안으로 들이지 않았고, 부모가 돌아갔을 때 지붕에 올라가 ‘복(復), 복, 복’ 하며 다시 돌아오라고 외쳤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라는 현세극정 태도는 곧 내세에 대한 불안의 표현인 셈이다.

또 처녀총각이나 아이들의 죽음은 축복받지 못했다. 처녀가 죽으면 귀신이 돼 괴롭힐까봐 머리를 땅으로 향해 문었고, 어린아이는 향아리 속에 꼭꼭 숨겨서 파묻었다. 반면 재생을 기원하는 풍습도 있었다. 섬이나 해안 지방의 마을에서는 아이가 죽으면 가마니에 싸서 나무에 매달아 놓는 풍습이 있었는데, 이것은 나비의 번데기처럼 다시 화려한 생명으로 부활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의 표현이다.

이 책에는 이처럼 민속학자로서 김교수가 보고 듣고 연구한 한국인의 죽음의 문화가 집대성돼 있다. ‘죽다’라는 단어와 관련된 다양한 변종어·이야기들을 통해 개별적 죽음에 대한 의미부여의 다양함, 뼈와 살, 영와 육의 의미 등을 살피고, 민속현장에서 귀신의 다양한 쓰임새도 심층 고찰하고 있다. 《제망매가》 등 고전 문학작품을 통해 드러난 죽음관, 딜런 토마스, 릴케, 몽크, 에드가 모랭, 보드리야르까지 동서고금 사상가, 문학가들의 죽음에 대한 표현도 충분히 문맥 속에 녹여내서 김교수의 죽음관과 비교할 수 있게 했다.